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훈련은 즐겁게 16일(현지시간)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런던 인근 왓포드(Watford) FC 훈련장에서 밝은표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 “런던은 홈구장”

첫 메달 도전 축구 대표팀 현지 훈련 잔디 적응법·동작 등 동료들에 전수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에서 사상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7일 새벽(한국시각) 런던 인근의 왓포드FC 훈련장에서 1시간여에 걸쳐 컨디션 회복에 중점

을 둔 훈련을 치렀다.

지난 15일 인천공항에서 잠도에 오른 대표팀은 장거리 비행에 마치고 히스로 공항에서 54km 떨어진 베드포드셔 루턴 후에 있는 전지훈련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다.

선수들은 장거리 비행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위주로 첫날 훈련 일정을 소화했다.

장시간 비행으로 선수들의 심박 수가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한 훈련이라는 게 대표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슬비가 흩뿌리는 날씨에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선수들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다.

첫 현지 훈련을 끝낸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과 상태가 많이 다른 영국 잔디에 대한 적응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수비수 오재석(강원)은 “한국과 잔디 상

태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박주영(아스널)과 기성용(셀틱)에게 들었다”며 “잔디가 미끄럽고 질척하다는 느낌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오재석은 “박주영과 기성용이 영국 잔디에 맞는 축구화 선택과 동작에 대해 설명해

줬다”며 “감독님도 잔디 상태를 고려해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빠른 공수전환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골키퍼 이범영(부산)도 잔디 상태에 대한 빠른 적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첫 훈련을 마치고 나서 “기후는 물론 잔디가 한국과 많이 다르다. 빨리 적응해야만 한다”며 “비 때문에 볼의 스피드가 빨라져 집중력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범영은 “다행히 한국에서도 비 내리는 상황에서 연습을 많이 해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태극 심판’ 20명이 편다

배드민턴·역도·축구 등 14개 종목에서 활약

런던 올림픽에는 공정한 판정으로 국위선양을 다짐하는 한국인 ‘포청천’이 대거 참가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 26개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복싱·펜싱·축구·체조·하키·유도·근대5종·수영·탁구·태권도·테니스·역도·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심판 20명을 파견한다.

가장 눈길을 끌 심판은 역도 배심원으로 활동할 허복 대한역도연맹 부회장이자 허 부회장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무려 8차례 연속으로 올림픽에서 심판으로 활동하게 됐다.

배심원은 주심의 판정뿐만 아니라 기술 감독관의 경기 운영까지 감시해 ‘심판의 심판’으로 불린다.

올림픽에서 한 경기에 5명씩 투입되는 배심원은 국제역도연맹(IWF) 집행위원의 투표로 선발돼 임찬권 권위를 자랑한다.

정동분 대한레슬링협회 이사는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4차례 연속으로 올림픽에 참여한다.

김 부회장은 심판 판정을 평가하는 ‘이벌류에이터’ 자격을 최근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얻어 각오가 새롭다고 한다.

이벌류에이터 자격을 지닌 심판은 전 세계에 13명밖에 없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1명씩 국제대회를 배정받아 심판들을 평가한다.

김홍래 대한하키협회 심판위원은 이번 올림픽에서 ‘센추리 클럽’에 가입할 전망이다.

런던 올림픽에서 6~7경기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98경기를 소화한 김 위원은 곧 100경기 금자탑을 쌓는다.

전 세계에서 100경기를 달성한 센추리 클럽 가입 심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제하키연맹은 새 주인공이 탄생하면 별도의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최영환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은 중주국의 포청천으로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태권도는 런던 대회부터 전자호구가 사용되고 타격 부위나 기술에 따른 점수 차등제가 도입된다. 경기장도 좁아져 판정도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복싱 심판은 올림픽 기회가 일생에 한 번으로 제한돼 참가 자격이 엘리트 선수들이 꾸는 ‘꿈’에 가깝다.

김석원 심판은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는 ‘스리스타 자격’을 갖추고 기다리다가 이번 올림픽에서 심판진 36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호식 남자 기계체조 기술위원장과 이정현 전 여자 기계체조 기술위원장이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100m 인간의 한계는 9.4초



육상 100m 세계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 런던 올림픽에서 9초58을 깨고 신기록을 세울지 관심이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과학자들이 본 기록

멀리뛰기 8.95m 2040년 돼야 깨질것
수영 종목 1천분의 1까지 기록할수도

올림픽의 모토인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AFP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몇몇 과학자들은 스포츠 기록을 경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언젠가 약물·유전자조작·선진 기술 없이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프랑스 INSEP 스포츠연구소의 제프로이 베르텔롯은 올림픽이 처음 개최된 1896년부터의 스포츠 기록을 분석했다.

그는 스포츠 선수들이 인간의 생리적인 한계의 99%까지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계산법에 따르면 2027년에는 147개의 스포츠 종목 중 절반이 기록을 세울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를 것이고, 그 이상으로는 0.05% 안의 범위에서만 변화가 있다는 것.

미국 블룸스버그대의 레자 누베리는 남자 100m 달리기 기록 한계가 9.4초라며 “인간의 속도 증가는 점차 폭이 좁아지고 있고 언젠가 완전히 멈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포츠적 재능의 놀라움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며 “우사인 볼트는 키 큰 사람의 장점인 긴 팔다리와 키 작은 사람의 장점인 백색근을 모두 지니고 있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누베리는 또 마이크 파월이 1991년 세

운 멀리뛰기 기록(8.95m)이 2040년이 돼서야 깨질 것으로 예측했다.

파월의 기록 또한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밥 비몬이 8.90m를 뚫은 이후 23년 만에 나온 것이다.

영국 셰필드대의 스티브 허크는 “한계가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50년 안에는 한계에 아주 가까워져 있을 거다”고 말했다.

가끔 차이를 내는 것은 유전자나 아니라 기술이다.

전신 수영복이 도입되자 2008~2009년 2년 간 세계 신기록 143개가 쏟아져 나왔다.

아면 사람들은 기록은 계속 경신될 것이지만 100분의 1초 정도의 작은 차이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캐나다 브록대의 이안 리치는 “1천분의 1초 차이까지 기록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한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언젠가 한계에 도달할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

1954년 영국의 로저 배니스터가 성공하기 전에 사람들은 1마일(1.6km)을 4분 이하로 달리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현재 1마일의 기록은 3분43초13이다.

이번 올림픽은 그런 의미에서 흥미진진한 축제가 될 것이다.

/연합뉴스